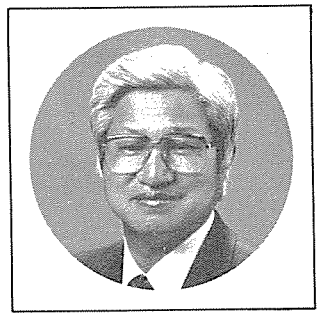
"全國土의 巨大技術團地化 추진"



李 祥 羲 長官

오늘 第22回 科學의 날을 맞이하여 여러분과 더불어 이날을 記念하고 科學技術 革新을 향한 意志를 다시한번 새롭게 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 科學技術의 발전에 진력해오신 全國의 百萬 科學技術人 여러분의 勞苦에 감사드리며, 특히 오늘 영예의 大韓民國 科學技術賞과 科學技術振興에 功을 세워 褒賞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에게 아낌없는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은 世界的으로 "技術主權主義"라는 표현이 널리 쓰일 정도로 國力競爭은 科學技術의 경쟁으로 대변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資源이 풍부하고 人口가 많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國力이 될 수 없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科學技術과 結合할 때 비로소 國力으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비록 우리나라가 지난 3년간에 걸쳐 12% 정도의 高度成長을 이룩하여 지금은 신흥공업국의 선두주자로 부상하였지만, 앞으로 더욱 가중되고 있는 국내외의 어려운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함으로써 온국민이 열망하는 2000년대초 선진국 대열에 成功的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科學技術의 획기적인 振興이 그 선결요건으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특히 21세기를 향한 앞으로의 10여년간은 經濟·社會的으로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變革의 時期"가 될 것이며, 더우기 변화의 속도가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을 정도로 아주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大變革은 급속한 科學技術의 발전에서 온 것인만큼 이에 대한 對應도 두말할 것 없이 科學技術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前提와 認識에 따라 政府에서는 國家의 死活的 요소인 科學技術을 振興시키는데 全力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尊敬하는 科學技術人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서 政府가 펴나가고 있는 科學技術振興政策을 말씀드리고자 합

니다. 먼저 基礎研究를 획기적으로 振興시킴으로써 科學技術開發戰略自體를 "모방"으로부터 탈피하여 "創造" 중심으로 과감히 轉換해 나갈 것입니다.

이는 尖端技術의 이전기피, 물질특허 및 지적소유권의 보호등을 통하여 尖端技術에 대한 보호장벽을 강화하고 있는 國際技術交易與件의 변화에 대처하여 創造的인 源泉技術을 우리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개발해 나가려는 불가피한 선택이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政府는 1989년을 『基礎研究振興의 元年』으로 정하고 各種 制度의 개선, 歲計剩餘金의 활용과 같은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創意的인 科學技術人材를 지속적으로 양성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研究開發人力을 1991년까지는 人口 만명당 18명 水準인 8만명, 2001년까지는 인구만명당 30명 수준인 15만명으로 확충시키려는 長期 科學技術人力養成 確保計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政府는 自然系 大學院의 확충과 教育의 質的 內實化, 科學英才教育의 확산, 各級 學校의 科學技術教育의 발전을 꾸준히 전개해 나갈 것이며, 특히 앞으로 마련될 基礎研究 振興資金을 활용하여 學生들의 研究機會를 확대하는데 政策의 力點을 두어 나갈 것입니다.

한편, 産·學·研이 협동하는 汎國家的 研究開發의 협동체제인"國家 研究共同體"를 구축하여 國際技術競爭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나아가서 視角을 全世界로 돌려 다각적인 國際共同研究를 수행함으로써 "國際共同研究體"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99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에서 『宇宙尖端技術 올림픽』을 개최하여 尖端科學의 寵兒인 宇宙科學産業을 韓國에 定着시키고 科學韓國의 긍지를 온 국민에게 불어넣는 一大契機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民間企業에 대한 存在의 技術開發 지원제도를 강화·확대함은 물론 技術開發 投資環境을 크게 개선하여 技術革新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技術高度化를 위한 『電算化』, 『自動化』, 『技術集約化』 事業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創意的이고 革新的인 企業家가 技術革新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성숙시키는데 政策의 근간으로 삼아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全國土의 科學技術團地化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地方化 時代의 도래를 촉진하는 한편, 나아가서는 全國土를 하나의 巨大技術團地로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이 事業은 먼저 研究, 産業, 教育, 文化, 주거등의 기능이 겸합된 테크노폴리스를 전국의 주요거점에 건설하고 關聯國土開發計劃과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全國土를 기술지대망으로 형성해 나갈 것입니다.

尊敬하는 科學技術人 여러분!

그러나 科學技術의 振興은 科學에 대한 國民의 깊은 이해와 관심 그리고 호응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國民모두가 科學技術의 중요성을 깨달아 科學을 崇尙하는 氣風이 확립되고 科學的인 思考方式과 行動樣式이 체질화되어야만 비로소 科學技術의 건실한 발전을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國民모두의 가슴속에 科學技術意識을 심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科學技術이 一般國民의 생활속에 폭넓게 배어들도록 바로 科學技術人 여러분들이 솔선해 주실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